

유은혜의 마이웨이... 반대에도 “수능 30~40% 뽑아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참여 조건 수능 전형 30~40% 이상 선발... 70개 내외 대학 선정
서울 16개대는 40% 이상, 수도권은 30%, 지방대는 학생부교과

교육부가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선발비율을 30~4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수능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따른 것으로, 대학들은 최근 이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대학들의 입시자율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공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도입됐다. 예산은 2016년 459억원에서 2018년 559억원, 2020년 697억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선정

대학은 70개교 내외다.

올해 사업기간은 2020년~2021년(1+1년)으로 선정 대학들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앞서 2018년 8월과 2019년 11월 각각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전면 개편됐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와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계획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참여 조건으로 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

사업 유형은 유형 I 과 유형 II로 개편된다. 유형 I 은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64교를 선정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다. 유형 II는 최근 4년(2016~2019)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6교를 신규 선정한다.

아울러 유형 I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를 선정해 대학 입시에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인사 참관, 평가 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해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절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입시비리가 적발돼 중

징계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이나 감점했으나 경징계시 재량에 따라 수혜제한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경징계를 받을 경우도 사업비 삭감과 감점토록 했다. 또 입시비리 연루자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비 20~30% 삭감, 선정평가 6~8% 감점으로 강화되고, 입시 부적절 행위 등은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5% 이내 삭감과 선정평가 1% 이내 감점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 신청서 예비접수는 3월 중, 사업신청은 4월, 평가위원회의 1차서면평가와 2차면접평가는 4~5월 진행되고 최종 사업 선정대학은 5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3월 올 수능 첫 모의고사 코로나19 여파 1주일 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3월 열리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도 한 주 연기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2일 예정이던 첫 모의고사는 1주일 미뤄진 3월19일 시행된다. 모의고사는 수능 전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시험에 적응토록하는 시험으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총 6회 치러진다. 첫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성과 4년 연속 최고등급

숙명여자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이로써 수도권에서 2016~19년 4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선정된 유일한 여대가 됐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저학년부터 전공별 직업경로에 기초한 진로지도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 말 시범대학에 선정된 이래 꾸준히 우수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사업 1년 연장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숙명여대는 학기 중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모의시험 등 취업스킬 프로그램은 물론, 현장실습과 전공별 특성화 프로그램, 숙명 DREAM Festival(취업박람회) 등을 꾸준히 시행하며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특허지원사업 잇단 선정 ‘쾌거’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사회 기여”

삼육대학교가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특허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산학연(産學硏) 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25일 삼육대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최근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시장 요구에 맞게 제품별로 묶어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공공연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삼육대는 제품단위 특허기술 이전 전략과 해당 제품



삼육대학교 전경

관련 기술의 마케팅 제반 비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이 강점을 가진 나노바이오 융복합 소재 분야

를 특색화해 국내외 수요기업과 매칭,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육대는 ‘정부 R&D 특허설계 지

원사업’에도 선정됐다. 대학과 공공연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우수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인 특허 권리범위 설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000만원 규모로, 화학생명과학과 박명환 교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특허 컨설팅을 받게 됐다. 나노버블과 에스터 결합을 활용하여 초음파유도 약물전달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삼육대 한경식 산학협력단장은 “이 외에도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사업’(3년차), ‘청년 TLO 육성사업’(3년차),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2년차) 등 기존에 수행해오던 정부 지원 산학연 협력사업도 올해 계속 수행하게 됐다”면서 “삼육대가 보유한 우수 특허를 활용해, 산업계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학교 세종컬리너리스쿨은 지난 14일 '와인과 소믈리에' 10주 차 수업과 정규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세종컬리너리스쿨 ‘와인과 소믈리에’ 과정 수료

세종대학교 세종컬리너리스쿨(SCIA)은 지난 14일 '와인과 소믈리에' 10주 차 수업과 정규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수업은 와인 잔의 종류와 와인 종류에 따른 보관법 등을 배우는 시간으로, 엄경자 교수는 와인 예절과 성공적인 호스팅 테이블 방법 등을 소개하고 특히 실생활에 유용한 와인 선물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수강생들은 직접 가져온 와인을 다른 참가자들과 나눠 마시며, 자유롭게 와인의 맛을 감별하고 평가하는 교류의 시간을 보냈고, 수업 이후 수료 대상자 6명에 대한 수료식이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신한금융투자 등 ‘정규직 연계 인턴십’ 채용

신한금융투자, 현대캐피탈 등이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인턴십을 채용한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주)는 3월1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뽑는 2020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본사영업(I B, Wholesale 등), Digital, IT, 정보보호, Risk Management다. 공통 지원자격은 국내/해외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가 없는 자, 현업 인턴십 전형 참여 가능한 자(2020. 04.06~4.29) 등이다.

(현업캐피탈도 3월3일 17시까지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연구개발, 품질, 생산, 구매, 영업, 재경, 총무 각 직무다.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및 20년 8월 졸업예정자, 신입사원 채용 시 올해 6월부터 즉시 정상근무 가능자 등이며 근무지역은 경기군포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스타트업에 기술 ‘테스트베드’

서울시교육청이 스타트업들에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 est Bed)’를 제공한다.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구유직임 측정’을 통한 기계학습 읽기능력 및 학습약자 진단 및 개선기술’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미래형 토론프로그램’ 실증지원 협약을 주식회사 BNRI와 스튜디오 코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

원 등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연계한 공공테스트베드제공 사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 부서를 실증 수요처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게 된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교육분야에 적용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